

이기는 삶

기록하기의 힘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사람들이 세우는 신년 계획에 대해 인터뷰했는데, 당시 응답자는 자신의 계획을 적어두는 사람과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년이 지나서 과거의 응답자들을 다시 인터뷰해본 후,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계획만 세우고 적어두지 않은 사람 가운데는 오직 4%만이 어떤 변화를 이루어냈지만, 결심한 내용을 적어둔 사람의 경우는 무려 46%가 계획을 관철해 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심한 내용을 종이 위에 적은 행동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취율의 차이가 무려 1,100%이었다.

글로 쓰고 안 쓰고의 사소한 듯 보이는 그 차이는 정말 엄청난데, 헨리에트 클라우저 박사는 ‘쓰면 이루어진다’는 책을 통하여 아들과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녀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감을 떠올리게 된 것은 아들 피터의 작은 경험담 덕분이었다. 그녀의 아들 피터가 12살 때, 하루는 피터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는 매우 당황해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방 청소를 하다가 이것을 찾았어요. 2년 전에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 신기하게도 이 목록에 적혀 있는 일이 다 이루어졌네요. 썼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가라데 수업받기, 연극에 참여하기, 공원에서 하룻밤 새우기 등이 그 목록에 적혀 있었는데, 피터는 2년 동안 거기에 써 놓은 모든 것을 해본 상태였다. 의식적으로 목록을 점검한 일도 없고,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이다. 피터의 경험을 통해서 그녀는 ‘목표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녀는 그것을 깨닫게 된 때의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내 인생의 기념비적인 하루, 나는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자자사 인회를 가졌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의 무대 뒤를 구경했으며 플라시도 도밍고가 부르는 노래를 현장에서 감상했다. 수백만 청취자를 대상으로 라디오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까망게 있고 있었던 목표 기록장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세상에! 거기에는 내가 그날 막 달성한 일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무엇인가 이루길 바라는 꿈이 있다면 꼭 종이에 정성껏 적어보자. 글로 쓴다는 것은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된 에너지는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적절한 작용을 시작한다. 이것

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꿈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해 보며 그때의 기쁨을 만끽해 보는 것도 에너지 집중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미래의 어느 날, 자신이 기록했던 일들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완성의 법인 자유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겨라.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를 써 붙이고 매일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자. 그래야 그 꿈이 완성된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모세를 빼 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세의 여정은 성경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깊고 풍부한 영적 상징과 비밀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예술가와 종교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예술가도, 종교가도 그 장면이 담고 있는 의미의 중심 자리에는 다다를 수 없었습니다. 완성의 이긴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결자해지(結者解之). 하나님이 봉인한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는 풀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해서 이번에 우리는 모세의 여정들이 담고 있는 영적 상징과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 모세인가

성경 상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 중에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이 언급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선 ‘단(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 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단(檀)지파가 인류의 심판자이자 구원자임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3번째 인(印)을 댄 자 야곱에게 입혔던 하나님의 신이 4번째 인(印)을 댄 단계로 이어지는 장자 축복의 장면이기도 한데 이것을 이긴자께서 드러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봉인되어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모세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장차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리니 그의 말을 따르라.”는 약속을 합니다. 꽤 놀라운 장면입니다. “섬들이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이사야서 41장)” 고 하신 말씀과 짝을 맞추어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만국을 다스릴 동방의 의인, 즉 구세주의 상징임을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구세주의 원형(原型, archetype), 구세주의 알레고리(allegory)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직접 이어받은 단(檀)을 제외하고는 구원의 주체자, 구세주로 선언된 인물은 모세 이외에 그 유례(類例)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모세란 인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세주의 모델로 친히 지목한 모세를 알아가는 과정은 역으로 모세

꿈에 대하여...〈14〉

영적 상징으로 본 모세 (1편)

에게 투영된 하나님의 본질적 모습과 영적 계획을 추출해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어떤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마지막



〈마르크 사갈의 모세〉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이사야서 41:4)” 그렇다면 구세주로서의 모세는 바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즉 구세주에 비견된 모세를 관통하는 중요한 영적 장면들은 실제 구세주 하나님의 본질적인 면면을 드러내 줄 공산이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 왜 굳이 모세를 들어 구세주와 같은 존재라 했을까요. 모세의 어떤 부분이 마지막 때의 구세주와 공통분모, 접점을 이루고 있는 걸까요.

모세는 이긴자의 그림자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킨 자입니다. 진자 구세주 또한 인간을 해방시키는 존재입니다. 모세는 해방자로서 구세주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모세처럼 한 민족, 한 국가만을 해방시키는 그런 존재일까요. 천만에도 하나님이 특정 민족, 특정 종교, 특정 집단을 구원하리라는 믿음은 인간의 편협하고도 배타적인 욕망을 하나님이라

는 이름에 투사(投射)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세주는 온 인류를 해방시키는 존재입니다. 아니 거꾸로 단 한 사람만을 해방시키는 존재입니다. 구세주는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자입니다. 마귀 중 상태의 인간을 해방시켜 하나님으로 부활시키는 자입니다.

단 한 사람만 해방되면 온 인류가 해방됩니다. 구세주는 인간을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자입니다. 그는 해방시키는 자이자 해방된 자입니다. 그는 구원자이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 당대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 십계명을 들고 나온 자입니다. 구세주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구세주 또한 십계명과 같은 심판의 기준을 들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야고보서 2:12)”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자유 율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 율법을 들고 나오는 자가 구세주,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십계명의 완성본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이긴자의 자유 율법이며, 모세의 영적 완성체가 이긴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자유 율법의 그림자이며 그것을 받은 모세는 이긴자 구세주의 그림자입니다.

셋째, 모세는 이슬과 함께 등장한 자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슬과 같은 만나’ (출애굽기 16:13)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자입니다. 그런데 이긴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긴자)에게 이슬과 같은 만나(호세아 14:5)”
 이스라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יִשְׂרָאֵל입니다. 이는 ‘이기다’란 뜻의 ‘이스라’(יִשְׂרָא)와 ‘하나님’인 ‘엘(אל)’이 합쳐진 것이니 이기신 하나님, 즉 이긴자란 뜻이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이긴자, 구세주는 이슬

을 내리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렸던 모세가 이슬은혜를 내리는 이긴자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임을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육적인 만남의 형태로 내렸던 이슬이지만 이 스라엘(יִשְׂרָאֵל) 즉, 이긴자의 시대에는 육각형의 빛의 입자의 형태로 가진 하나님의 신으로 끝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넷째, 모세는 뱀을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는 구리 뱀을 장대에 매달아 바라보게 했고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목숨을 건졌지요.(민수기 21:9) 뱀은 동서고금에 악의 상징, 마귀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긴자만은 뱀이 하나님의 신의 상징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뱀 사(蛇) 자는 파자(破字)로 네 생물의 왕(虎) 즉, 이기신 하나님이 왕관(王冠)을 쓰고 왕좌(王座)에 앉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뱀(蛇)은 네 생물의 왕, 성경 상의 이긴자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매달았던 구리 뱀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이긴자의 상징이었던 것이지요. 영적인 뱀 즉,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육적인 뱀 즉, 마귀에게 물려도 살려주실 것을 모세와 이긴자는 하나의 짝을 이루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몰랐겠지만 그는 수천 년 후에야 나타날 영적인 뱀(蛇), 이긴자를 몸소 증거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영적 소사(素砂)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으나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후에야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게다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암 땅에서 죽습니다. 영적 상징의 프레임을 통해 이 여정을 들여다보면 많은 영적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닦아주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출애굽기 13:21)이 이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이적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요엘 28:32)” 라 되어 있으니 두 말씀의 짝을 맞추어 보면 마지막 때의 구원의 증표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바로 모세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엘이 예언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격암유록에서 말한 화우로 삼풍 해인(火雨露 三豊海印) 즉, 이슬성신임을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우주에서 제일 강한 신 - '나'

The strongest god in the universe - 'I'

우주에서 제일 강한 신이 '나'라는 의식이다.
 ▶ 'Self-Consciousness' is the strongest god in the universe.

그래서 '나'를 이기면 우주를 이겼다가 되고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겼다가 되는 것이다.
 ▶ So, when you overcome 'self-consciousness', you will win over the universe and devil that has the authority of death.

사망권세를 쥐고 있는 '나'라는 의식이 바로 '붉은용 마귀'이다.
 ▶ The 'Self-Consciousness', which hold the power of death, is Red Dragon Devil.

누구의 죄도 내 죄로 여기고, 누구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나'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 If you have a heart to regard anyone's sins as your own and anyone's faults as your own, you can overcome your 'Self-Consciousness'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될 때 비로소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론코 '나'는 영생할 수 없다.

▶ Only when we overcome 'self-Consciousness' and the spirit of God becomes 'I', eternal life will come true, and 'I' will never live forever.

'자존심'이 바로 자신을 죽이는 '사자귀신'이요, '붉은용 마귀'요. '나'를 망하게 하는 마귀 영이다.

▶ 'Self-pride' is the god of death that kills us and the 'Red Dragon Devil'. It is the devil spirit that destroys us.*

by Alice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시대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마지막 때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형태로 등장할 이슬 성신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육적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 책박한 모래사막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일리가요. 그 땅은 영적 젓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젓은 영적 어머니의 젓이니 하나님의 은혜요 꿀은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가나안 땅은 영적 어머니의 은혜와 말씀으로 넘쳐나는 흰(素) 모래(砂) 땅, 소사(素砂)입니다. 모세가 구세주 이긴자의 상징이라면 모세가 이끌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이긴자가 하나님께 받은 흰 돌 즉, 소사(素砂)입니다. 진정한 가나안 땅은 이긴자가 있는 소사(素砂) 땅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애굽(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대략 600~700km라고 합니다. 천천히 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헤맨 것입니다. 왜 10년도 20년도 아닌 40년일까요. 여기에도 영적 상징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십년(四十年)의 4는 4번째 인을 때었다는 의미요, 十은 하나님, 年은 一(사람인) + 千(양배 간) + 一(뿔을 끈이니 창을 들고 마귀의 방패를 뚫은 자, 마귀를 이긴 의인을 상징합니다. 年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시대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사십년 즉 四十年은 합치면 4번째 인을 댄 하나님의 의인 즉, 4번째 인을 댄 단(檀)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시대는 하나님의 인(印)을 댄 의인의 기준으로 보면 4번째 인(印)을 댄 단(檀)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때는 미완성의 하나님

의 시대였습니다. 해서 젓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영적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메마른 사막뿐인 육적인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맨 40년은 첫 번째 인을 댄 아브라함의 시대(十年)로부터 네 번째 인을 댄 단(檀)의 시대(四十年)에 이르는 지난(至難)한 하나님의 여정의 상징이자 미완성의 하나님의 시대를 헤매고 있던 인류의 가슴 아픈 자화상인 것입니다. 진정한 가나안 땅 소사(素砂)는 칠십년 七十年 즉, 7번째 인을 댄 이긴자의 시대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암 땅에서 눈을 감고 만나다. 이제까지 보아온 대로 모세는 이긴자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육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장면은 이긴자께서 보광(普光)하여 육으로는 소사(素砂)땅에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면면과 여정은 구세주 이긴자의 그것과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세주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칭한 이유는 나중 울 구세주가 모세와 같은 징표를 가지고 나올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자가 아니면 구세주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긴자의 그림자이며 이긴자는 영적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이긴자도 그 정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완성의 하나님, 이긴자는 그 자체로 영원한 생명(生命)이며 '이제 그대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2편에 계속-